社 說

물거품된 대학 유치 사업

포천시가 추진해왔던 예원예술대학교 유치사업이 7개월만에 전면 백지화됐다.

예원예술대학교 측이 토목공사를 위한 지질조사 결과 대형 암반이 묻혀 있어 토목공사비가 평당 70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이유로 백지화 의사를 포천시에 밝혀왔다는 것이다.

과연 토목공사비 3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이유로 MOU 체결이후 7개월 동안 추진해 왔던 대학유치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같은 사실에 '그래 맞다'라고 박수를 쳐 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처음부터 대학이전에 대한 의사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예원예술대학교가 이전사업예산은 마련했었는지도 궁금하다. 혹시 정치적인 행위의 하나였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포천시는 예원예술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시유지 7만7천130㎡를 내놓기로 했다. 그리고 사업비 212억8천300만원을 세우고 오는 2011년까지 대학유치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 첫해 사업으로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학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사유지를 매입하고 본격적인 학교 건립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모두들 그렇게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특히 일동면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토지 가격도 상승했다. 인근에 칸리조트의 개발과 더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암반 때문에 이 모든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다. MOU가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도 문제다. 약속을 해놓고 중간에 지키기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원예술대학교 측은 수도권 다른 곳에 캠퍼스 이전 사업을 계속 물색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처음 추진 당시 예원예술대학교에서는 포천시에 다른 부지를 요구했다고 학교 관계자가 밝혔다. 그러나 그 부지는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불가하다고 했다고 한다. 그때 이미 예원예술대학교는 이전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포천시 당국은 따져봐야 할 것이다.

포천시의 학교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는 예원예술대학교 관계자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다. 예원예술대학교 총장은 이처럼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모습을 전 교직원앞에서 칭찬했다고 한다. 가서 배워오라고 까지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이전 추진을 백지화 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원예술대학교의 대학유치사업 실패를 교훈 삼아 모든 MOU에 관해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투입했던 행정력의 손실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또 다른 MOU체결사업이 백지화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

포천시는 모든 MOU 사업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MOU 체결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학유치사업을 계기로 포천시는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독료 :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 훈 :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편 집 국 (031)542-1506
광고접수 (031)542-9888
구독신청 (031)542-9889
F A X (031)541-9117
발 행 인 최 호 열
편 집 국 장 김 영 복
인 쇄 인 이 정 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특별인터뷰 소흘노인대학 학장 이성호

소흘노인대학 전용공간 마련 시급하다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 위해 제4기 109명 수업중

"소흘노인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전용교육장소가 필요하고 시의 지원 금액 또한 학생들의 숫자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노인들만이 전문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 전용공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소흘노인대학 이성호(70·사진)학장은 "인근의 양주노인대학의 경우 전용강의실은 물론 식당도 갖추어져 있어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함께 식사도 할 수 있어서 부러웠다"고 말했다.

읍사무소 자리에 노인들을 위한 학습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2005년에 개교한 소흘노인대학에 초대 학장으로 취임해 현재 제4기 109명의 노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 학장은 포천 선현들의 기념관 하나 없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2시부터 2시간 동안 소흘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강의 과목은 교양, 오락,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의 자질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학장은 선현들의 기념관 하나 마련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지자체장의 관심도가 적었으며 표와 연관된 사업을 하다보니 알맹이가 없는 일만 하게 된다며 너무 이벤트성으로 흘러가는 사회분위기는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국방문시 한국전 참전용사를 만나고 돌아와 영북면에 있는 태국군 참전비 주변에 태국민속박물관을 건립해 역사의 자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시장에게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요즘 시국에 대해 이 학장은 "유럽의 좌우파 개념과 한국사회의 좌우파는 그 내용이 다르다"며 "내용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촛불시위에 나서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를 흔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 국사과목을 공부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적없는 학생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에 외교관이 된다면 과연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

일생을 야당으로 생활해오신 선친의 뜻에 따라 사립학교에서만 근무를 하게 된 이 학장은 포천유림대학에서 1주일에 1회 강의를 통해 근본적인 뿌리 찾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수백년 동안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온 유림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한다.

유림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기금 마련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고 기금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을 교훈으로 삼아 운영하는 소흘노인대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공익요원이 도움을 주고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학장은 앞으로 소흘노인대학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포천신문이 다양하게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성과 · 분석 양질의 治安서비스 창출'

포천경찰서 2008년도 6월중 치안성과 보고회

포천경찰서(서장 양종렬)는 6월16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지향 2008년도 6월중 치안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각 기능별 08년도 5월 성과지표에 대해 성과·분석 및 향후 대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성과지표 중 외근형사 1인당 5대 범죄 검거건수가 도내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종렬 포천경찰서장은 훈시를 통해 "치안성과 보고회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으로 포천시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며 "목표에 의한 치안성과 창출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포천 만들기에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경찰서는 6월16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지향 2008년도 6월중 치안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모범운전자회 근무상황 점검

포천경찰서, 교통질서 확립 지속적 협조 당부

포천경찰서는 6월10일 오전 10시30분 포천경찰서 강당에서 2008년 2/4분기 모범운전자회 근무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포천경찰서(서장 양종렬)는 6월10일 오전 10시30분 포천경찰서 강당에서 2008년 2/4분기 모범운전자회 근무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초등학교 등굣길 및 43호선 출근길 또한 각종 지역 관내 행사에 봉사한 회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교통문화를 정착하자고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어울마당

예 애 자
주부명예기자

초여름답지 않게 찌는 더위. 송우리 주공 2단지 APT의 풍물시장을 축복해 주는 냥 시원한 소낙비가 잠시 더위를 잠재우고 경제 타령하는 포천시민의 애향을 달래는 풍요로운 풍물과 먹자파티가 시작된다.

부녀회의 다문화가정 돕기, 일상생활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삶의 지혜로움은 시장 사람들에게서 사는 모습을 배운다. 저마다의 시간 활용, 지혜로운 길을 택한다 해도 결코 노력없이는 주어지는 현실을 느낄 수도 바랄 수도 없다. 구성진 각설이타령. 누구의 마음 하나 하나 헤아린 듯 어찌나 한 구절 한 구절 맞는 말만하던지 스며드는 가슴속의 향수의 애환이 저절로 떠나간다.

남녀노소 할머님, 할아버님의 흥겨운 허리춤에 공감대를 느끼며 가는 세월 엮어 매어 잠재우고 싶다.

주부명예기자단 단원으로 1월에 발돋움을 해 놓고도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참석치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 간절하지만 행사장에 박혜자 단장님과 송미령 총무님이 격려차 오시어 참으로 기분이 GOOD.

신형숙 부녀회장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신 모습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린다.

경원콤푸레샤 내외분 예나원 홍재민 사장님의 응원과 송미령 총무님의 가창솜씨는 보는 이의 흥겨움을 돕는데 일조를 했다. 마치 서민들의 축제인 냥 어울림의 축제는 시간을 멈출 타임머신이 존재했으면 하는 바램일 뿐이다.

그리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어쩌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정한지 내일을 그리워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늦은 밤이 아쉬워 진다. 숨 가쁘게 밀려오는 살아온 세월의 고독함보다는 어우러진 삶의 향연이 왜 이리 행복해 지는 걸까. 삶의 풍요로움보다는 값진 테두리의 삶의 정겨움 함께 나누고 살아가고 싶다.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6월 10일 ~ 6월 1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2008. 6. 10 포천신문 제415호 발행
2008. 6. 20 포천신문 제416호 발행
2008. 6. 30 포천신문 제417호 발행예정